

“설 선물시장 잡아라” 사활건 판촉 경쟁

백화점 3사 세트물량 확보·예약판매 돌입 쇠고기 판매 줄고 생선·청과물 매출 늘 듯

지역 백화점들이 설(2월 3일)을 한 달 앞두고 설 선물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판촉전략을 세우며 고객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구제역 파동으로 명절 주력상품이었던 한우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대체 상품으로 청과·수산물 선물세트 물량을 늘리는 등 관련 상품판매를 강화하기로 했다.

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해 고가의 선물세트보다는 중·저가가 인기를 끌었던 점을 감안해 5만~10만원대 중·저가 선물세트 물량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연초부터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저수용품을 중심으로 초특가 판매, 실속상품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공식품과 주류 선물세트 등 일부 상품군별로 20~30세트 가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최저가 상품전’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부터 소비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고 10만~15만원대의 선물세트를 주력상품으로 전년보다 20% 가량 늘어난 물량 확보에 들어갔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농수축산물보다는 골반을 비롯한 건강관련 상품

을 찾는 손님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관련 상품 물량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 식품 안전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친환경 상품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역 백화점들이 일찌감치 설 인기가품 확보에 들어가면서 가격도 상승세를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신세계, 롯데 백화점 광주점 등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출시될 사과·배 등 청과물 선물세트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10~20%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불철 냉해로 작황이 좋지 않아 물량이 20%가량 줄어든데다 구제의 영향으로 한우 대신 청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골반 등 선어물 세트는 구제역에 따른 반사효과로 인해 수요가 늘어 작년 설 때보다 5~20%가량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별치 역시 어획량은 늘었으나 선물세트로 구성할 수 있는 상품(上品) 등급의 물량이 줄어 작년보다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사육두수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던 한우는 구제의 파동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선물세트 값이 2~5% 가량 소폭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제역이 계속 확산할 경우 냉장 한우를 중심으로 선물세트의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선물세트 가격은 환율안정 등의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신세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7일부터 선물 예약판매를 시작하며 정상가 대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농산물공판장 야채등에서 경매사와 도매업자들이 힘찬 손짓으로 새해 첫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새해 첫 경매...농산물공판장 활기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농산물공판장 야채등에서 경매사와 도매업자들이 힘찬 손짓으로 새해 첫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매곡동 이마트 저지대책위 오늘부터 1인시위

중소상인과 정당,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가 4일부터 1인 시위를 열고 입점 저지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23일까지 북구경찰서 사거리(오전 8~9시)와 서구 광천동 신세계 이마트 광주점(오전 4시30분~5시30분)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 신세계 이마트 입점 예정지인 북구 매곡동 고려중·고교 주변 상인

과 학부모, 주민들에게 이마트 입점저지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오전 8~9시, 이마트 광천점 앞에서 오후 4시 30분~5시 30분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 신세계 이마트 입점 예정지인 고려 중·고 주변 상인과 학부모, 주민에게 이마트 입점저지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오는 22일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달 중 본사 항의방문과 동전계산 퍼포먼스 등도 열 계획이다.

장구한 대책위원장은 “이마트의 모습은 막강한 대자본의 힘으로 약자의 생존을 짓밟으려는 것”이라며 “골목 상권이 무너진 지금 이마트가 들어오면 지역 유통업은 더 몰락할 곳이 없게 되는 만큼 지역 상인들의 생존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역 백화점, 한파·연말특수로 매출성적 ‘굿’

한파 영향으로 겨울 의류 판매가 늘어났다 연말특수로 지역 백화점들의 지난해 12월 매출 실적이 올랐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지난해 12월 매출이 11% 늘었다.

한파 영향으로 내복, 패딩점퍼 등이 잘 팔리면서 스포츠 등 아웃도어 상품군(30%)과 내복(21%) 매출이 크게 늘었다.

연말 선물 수요가 늘면서 머플러(28%), 장갑(17%), 모자(15%)

등 잡화 매출도 눈에 띄게 상승했으며, 전기장판(27%), 히터 등 열적외선 선풍기(24%) 등 난방 용품 매출도 호조를 보였다.

같은기간 현대백화점도 광주점을 포함한 전점 매출은 19.8%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아웃도어와 스포츠 의류의 매출이 각각 41.8%, 35.8% 증가했으며,영패션의류(28.7%), 아동의류(22.5%) 판매도 크게 늘었다. 잡화와 남성류도 각각 작년 동기대비 19.5%, 17.8%씩 매출이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강추위 영향으로 패딩점퍼(45%) 등 겨울용 의류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010’ 안바뀌도 스마트폰 가입 가능

2013년까지 한시적 허용

‘010’ 식별번호의 이동 없이 쓰던 휴대전화 번호 그대로 아이폰 등 스마트폰 가입 및 이용이 20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그간 011, 016 등 식별번호로 출발하는 전화번호 이용 가입자들은 스마트폰 변경시 010 식별번호로 강제 이동해야만 이용이 가능했다.

KT와 SK텔레콤은 3월 ‘01X 3G 번호이동’ 및 ‘01X 번호 표시’ 서비스를 통해 기존 휴대전화 번호 변경을 꺼리는 이용자들도 기존 번호 그대로 스마트폰 가입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SK텔레콤의 경우 HTC의 디자인이랍, 디자인어, HD2, 모토로라의 모토믹스, 모토다파이, 모토 A853 등 6개 기종만 현재 가능하며, 15일부터 전 기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3G 번호이동 서비스 가입자는 스마트폰으로 기기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전화번호 그대로 2013년말까지 이용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가입시 010 번호가 부여되지만, 실제 가입자가 이용할 때에는 발신 및 수신에 사용하는 번호가 기존 번호 그대로 적용되기에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 번호 그대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연합뉴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56%

“원재료값 올라도 가격 안올려”

국내 프랜차이즈(가맹점업) 업체들의 대다수는 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업 509곳을 설문한 결과, 74.7%가 올해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56.0%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을 오히려 내리겠다는 곳도 2.8%나 됐다.

가맹점 수가 작년보다 증가할 것

으로 예상한 곳은 79.6%였고 46.0%는 설비투자를 더 늘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한 업체 중 해외에 진출한 96곳 가운데 64.6%는 중국, 32.3%는 미국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해외에 새로 진출하거나 추가로 가맹점을 낼 계획이 있는 곳은 45.8%였다. 올해 가맹점업 경기가 작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곳은 46.2%였고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는 응답은 31.4%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코카콜라 평균 6% 가격인상

코카콜라음료가 플라 제품 가격을 평균 6% 인상했다.

3일 코카콜라음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코카콜라와 코카콜라 제로, 코크라이트, 코카콜라 체리 등 4개 브랜드 13개 품목 공급가격을 4.2~8.6% 인상했다.

앞서 코카콜라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음식점에 공급하는 코카콜라, DK, 환타 등 10개 품목 가격을 평균 3~4% 인상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일반 소비자용으로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 공급하는 품목의 공급가를 일제히 올렸다.

암바사와 파워에이드, 네스티, 조지아커피 등 플라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마트와 슈퍼 공급가를 평균 5~6% 올렸다.

/연합뉴스

출발 좋은 증시...2100 돌파 눈앞

코스피 사상 최고

2011년 신묘년 첫 증시가 탄탄한 기업 실적과 풍부한 유동성의 힘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올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08포인트(0.93%) 오른 2,070.08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한국증시가 1956년 3월 3일 개장한 이후 처음으로 밟아보는 전인미답의 고지다.

증시 전문가들은 연초 5일간 올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연초효과’가 힘을 발휘할 것으로 해석했다.

신영증권의 김세중 투자전략팀장은 “보통 연초 5일은 그 해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연초효과’가 나타난다”며 “올해 대내외적인

환경이 증시에 우호적이라는 판단이 우세해 지수가 첫날부터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감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 투자주체들의 매수세를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 3118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관도 1041억원을 동반 순매수했다. 개인은 3666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매수 우위로 전체적으로 689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대다수 업종이 오른 가운데 의료정밀(2.62%), 기계(2.58%), 전기전자(1.76%) 등이 상승률 선두를 달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기아차(3.75%), 현대모비스(3.51%), 현대차(2.02%)를 비롯해 KB금융(3.00%), LG전자(1.69%) 등 금융과 전자전자주도 끌고구 올랐다.

/연합뉴스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GRAND OPEN

OPEN 기념!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한식 20가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층별시설안내

- 5F 벨라지오희(웨딩홀) 카네기홀(연회장)
- 4F 객실, 신부대기실
- 3F 객실
- 2F 객실, 워트니스센터
- 1F 프론트,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연회상담실
- B1F 대연회장, 페백실

웨딩홀

객실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 객실 인터넷 사용**

객실예약 | (062) 600-9999 |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플렉서 옆) | www.hotelarthall.co.kr

古家 고향의 맛

고가약오리탕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객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가한식 뷔페를 찾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1월 4일부터 약오리탕 전문점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한분 한분의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더욱 친절하게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오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고가약오리탕 | 예약문의 062)226-8254